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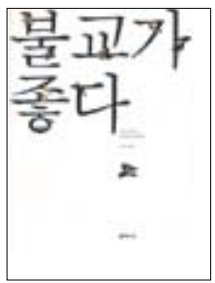
日 사상계의 두 기둥 불교를 말하다



나카자와 신이치 주오대 교수.

일본 사상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불교'를 계기로 만났다. 한 사람은 일본 옹 학파의 선구자이자 동양적 심리학을 주창한 가와이 하야오(77) 문화청 장관. 다른 한 사람은 종교학과 철학을 두루 넘나들며 '일본 제일의 인문학자'로 불리는 나카자와 신이치(54) 주오(中央)대 교수다. 지난해 일본 '아사히신문'의 기획대담으로 한 자리에 앉은 두 거장은 '불교'를 화두로 종교와 철학, 신화, 과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담을 정리해 내놓은 책의 제목이 곧 대담의 결론이기도 한 <불교가 좋다>이다.

문고 답하기 형식의 깊이 있고 명쾌한 대담집
불교 화두로 철학·신학·과학 문제 파고들어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옮김
동아시아 | 1만2천원

지에 전력을 쏟아왔는데, 오로지 불교만이 대규모의 종교이면서도 대칭적 관계를 중시해왔죠.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도 신 앞에서 인간의 평등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비대칭을 전제로 한 평등인 셈입니다."
일신교의 비대칭성이 그동안 과학 발전 등의 성과를 낳기도 했지만 많은 부작용, 곧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불교의 대칭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카자와 교수는 "일신교의 경우 윤회를 탈출해 모든 신의 세계를 초월한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 자체에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류의 첫 번째 형이상학 혁명입니다. 그 뒤 탄생한 과학이 두 번째 형이상학 혁명이라면, 그 다음 세 번째 형이상학 혁명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불교일 것입니다. 불교는 근대과학과 일신교, 이



가와이 하야오 일본 문화청 장관.

둘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격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불교와 심층심리학, 종교의 여성원리, 불교적 행복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칭성의 회복을 통한 내면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된 일본에만 유효한 결론은 아닐 것이다. 바로 눈앞의 목표물만 쫓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에 놓인 인류 모두에게 던지는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새로나온 책



■ <기려 역은 이함경> (허정 스님 역음, 지혜의 나무, 1만8천원)=초경경전 중 하나인 <잡아함경>의 1,362경 가운데에서 재가불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기본 교리를 담은 160경을 뽑아 엮었다. 귀의, 붓다, 믿음, 보시 등 19개의 주제로 분류해 찾아보기에 편하도록 구성했다.

■ <공경소리 2> (공경소리 글, 정병래 전각, 샘터, 8천원)=복잡한 도심 지하철역에서 불교적 가르침으로 감동과 지혜를 전해주는 '공경소리'에 실린 글과 전각을 모은 두 번째 책.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분침과 시침' 등 61편이 실려 있다. 법정·해자 스님, 박경준 교수, 김원각 시인 등이 필자로 참여했고, 고암 정병래 씨가 전각을 맡았다.

■ <불교우화 1·2> (이용범 지음, 수희재, 각 1만원)=불교의 우화와 설화 266편을 두 권의 책에 담았다. 짧은 글 속에 많은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불교우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줄 것을 작가는 권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라는 부제가 붙은 1권에는 생활에서의 지혜를, '복 받에 씨를 뿌려라'라는 부제의 2권에는 불교적 지혜를 주로 담았다.



탁났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속의 샘물
탁났한 글 | 보 더 미디어 | 이해인 옮김
계림북스쿨 | 8천5백원

성자가 된 동지개꾼
김종표 글 · 그림 | 푸른나무 | 8천8백원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 그림 | 운주사 | 9천원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정일 글 | 김정열 그림 | 솔바람 | 1만원



자녀와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 어린이 불교 그림 · 만화책 4권 잇따라 나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모든 불자의 염원이다. 자녀들 또한 그러하기를 불자들은 바란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다.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줄 책이 그림책과 만화책으로 나왔다.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탁났한 스님이 들려 주는 마음 속의 샘물>은 탁났한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어린 탁났한은 성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높은 산을 한 달음에 오른다. 하지만 정작 만난 것은 작은 웅덩이. 웅덩이 물로 갈증 난 목을 축이고 큰 행복을 느낀 탁났한은 샘물에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탁났한 스님은 우리에게 말한

다. "너 역시 어디선가 이미 성자를 만났을지 몰라. 어쩌면 그것이 바위, 나무, 벌··· 혹은 아름다운 노을일 수도 있을 테지." 성자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성자가 된 동지개꾼>은 불교 설화를 그림책으로 꾸민 것이다. 인도 의 가장 친한 신분이었던 동지개꾼 니이다이가 성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사람들의 천대를 못 견디고 자

살하려고 산으로 들어간 니이다이가 산속에서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두 권의 그림책이 간결한 내용 속에 강한 울림을 담고 있다면,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만화가 줄 수 있는 코믹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자타카(본생경)>



에 근거하여 불교만화가 정수일이 만화로 꾸몄다. 66개의 이야기를 실었고, 각 이야기 말미에는 그에 담긴 교훈을 적어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은 선사들의 선문답과 일화를 만화로 풀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가섭, 달마 스님을 포함해 선지식 60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름집게
문의: (02)737-0695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청정도론 1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2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3	탄허스님의 동양사상 특강	탄허 스님	교림
4	잡나	해기 스님	선문
5	육조혜능평전	이은윤	동아시아
6	물속남숨에 마음 행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7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림 스님	바보새
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9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10	열흘간의 만남	오현 스님 외	아름다운인연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계현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無心>! — 무심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참된 웰빙을 맛본다!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프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강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일하는 원리!
직장상사에게 먼저 코를 꿰어주는 넉넉한 마음!
수치심을 벗어나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을 읽으면, 당신도 부처님처럼 웰빙할 수 있습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재'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직장인 명상캠프'에서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책이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자 : 문화영
펴낸곳 : 도서출판 수선재
펴낸날 : 2004년 5월 6일
가격 : 9,000원
분량 : 240쪽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991-9315 FAX 02)991-9314
WWW.SOOSUNJAE.COM